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7 제6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778•7427 FAX 02•778•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 1. 15 발행인 : 한홍순

정진석 추기경 평신도사도직 활성화 강조 서울대교구 신년하례 미사에서



〈사진제공 평화신문〉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새해 1월 3일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 성당에서 봉헌된 2007년 서울대교구 신년하례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한국교회가 신자 500만명 돌

파라는 양적 성장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의 개신교처럼 정체되지 않고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와 공동사목 정착을 역설한 정 추기경은 “가톨릭이 쉬는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성당에 오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양적 성장과 이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추기경은 이어 하느님 체험을 통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 말씀(성경)을 깊이 맛들이는 것과 함께 소공동체와 레지오 마리아, ME 등과 같은 평신도 사도직을 좀더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 추기경은 아울러 “친교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운 대형 본당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는 어

☐ 신는 순서 ☐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전국 사도직 단체〉

☐ 레지오 마리아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레지오 마리아 서울 세나투스

◎ 동정

렵다”면서 친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사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공동사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사목 희망 사제(수품 5~10년)들을 모아 공동사목 취지와 필요성, 방법 등을 함께 연구토록 한 다음 팀을 이뤄 공동사목 본당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사에는 염수정·김은희·조규만 주교

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과 서울평협 한홍순 회장, 이관진·류덕희·여규태·손병두 고문, 회장단과 자문위원, 상임위원, 분과위원장, 가톨릭경제인회 박광순 회장과 서울 세나투스 팽종섭 단장, 연령회연합회 김종호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 한해 서로의 건강을 기원했다.

정 추기경은 미사 후 성당에서 진행된 신년하

〈한홍순 회장 인사〉

사회 복음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올 한 해도 교우들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은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평협은 지난해에 다양한 계층의 교우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러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작업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평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의회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평신도학교는 1학기과 2학기과로 나뉘어서 실시하고, 여름방학을 이

용해서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선작을 낸 ‘우리 성가’ 가사에 곡을 붙이는 작곡 공모는 올해 4월에 마감하게 되어 있으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려는 이러한 작업은 성가합창제와 더불어 올해에도 계속해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2008년이면 한국평협이 설립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이 땅의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마침 지난해에 개편한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서울평협 뿐만 아니라 한국평협 기구로도 포함시켜서 활동을 계속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연구소는 우선 교우들의 신앙생활 실태에 관해서 오랜 준비 조사를 거쳐 올해 실시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평협 40주년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